

“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쾌안은거 아이겠는교!”

이름:

곽혁진

나이:

20

직업:

경호인, 시큐리티 가드 등등등... 힘쓰는덴 다 가는 프리랜서.

종족:

인간

성별:

XY

케이크 종류:

블랙 레어 치즈 케이크.

겉은 새카만 코팅이 되어있으나, 갈라내면 진한 치즈케이크가 포슬포슬하게 들어차있다.

페로몬:

스타

섭취 당하는 기간:

5일로 꽤 짧은 편이나, 딸이 경호이지 대신 때려잡혀줄 사람을 구하는 작자들의 밑에서 구르는게 엄이기에 썩기까지 하는 일은 드물다.

키/ 몸무게:

171, 정상 체중.

외관:

전반적으로 새카만 외관, 여우상이다.

시커먼 옷을 들춰 보면 유제품 냄새가 날 것 같이 뽀얀 피부.

검고 은근 아무렇게나 뺨친 짧은 머리이다.

시커먼 눈이, 생각보다 날렵하게 빠져 음흉하게 생긴 것도 같다.

체형이 그리 두툼하진 않다. 오히려, 몸 쓰는 일은 안 어울릴 정도의 압축 근육이다.

경호가 엄이라 평소엔 시커먼 정장, 시커먼 면 옷에 슬랙스 바지, 구두 차림이다.

비번인 날엔 스트릿 풍의 옷으로 실컷 입고 다니는 편.

몸에 이곳 저곳 흉이 많지만,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다.

뼈대가 굵은 편이라, 손목 발목이 두툼하다.

입 안, 혀 등이 새카맣다.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은 피부 빼고 전부 시커먼 느낌.

성격:

대담한 / 긍정적인 / 유쾌한 / 순박한

L/H:

L

- 도시 - “내 평생을 촌구석에 살았는디 상경 하나 보고 이래 뛰쳐나왔다 아임까!”
- 재밌는 사람 - “아무래도 딱딱한 사람들은 대하기 쪼매 딱세드라고.”
- 고양이 - “아무래도 꼬시한 냄새가 나가 오는 것 같기는 헐디, 그래도 귀엽잖애.”

H

- 무례한. - “역~~시 정 안 붙고 영 파이다. 별로라 안 카나.”
- 고통 - “그... 쳐맞는게 엄이긴 헐디. ...이런거 좋아라 하는 아들도 있나?”
- 어두운 - “아니 원래 그, 뭐고, 안 보이면 졸린다 아이가???”

특징:

싸움에 특화된 몸도 아니고, 힘이 드라마틱하게 강한 것도 아니지만  
싸움만큼은 잘 한다.

그 만큼, 싸움 실력과는 상관 없이 누군가 드라마틱한 힘으로 찍어누른다면...  
으.

생일은 7월 4일.

무기란:

쇠 너클 한 쌍.

---

오너닉: 스스오

오너 나이: 05

s.w: 건강한 신체, 건전한 정신